

북한산 도로·문화재청 승격 등 불교계 현안풀기

조계종·불자의원들 공조 분위기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및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등 불교계 현안 풀기에 조계종과 불자 국회의원들 간의 '공조' 분위기가 조성됐다.

조계종은 민주당 불자 국회의원의 모임인 '연등회' 의원들을 초청, 8월 20일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 이슈, 정책 및 제도, 국고지원 등 세 분야의 불교계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연등회 의원들은 조계종의 요청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이들 현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을 비롯해 성관(총무부장)·현고(기획실장)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김기재(연등회 회장)·김근태·추미애·박주선·김태홍·함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조계종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26일에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나라당

불자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조계종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모두 9가지다. 우선 '사회 분야'의 요청 사항인 북한산 관통도로 폐지 및 친환경 노선 채택과 관련해 법장스님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한국 종교계를 대표하는 7대 종단도 불교계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

네 가지 사안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 가운데 국공립 박물관 소장 불교문화재의 이관과 관련해 조계종은 "현재 건립중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 불교전통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어 전국 국공립 박물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불교 문화재를 불교가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며 "불교 문화재가 원래 소유자인 종단

목에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조계종은 이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종단의 자부담 외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제시한 '종단 역점 추진 사업'의 세부 항목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국공립사찰 실비 노인 요양시설 △한국불교국제간화선센터 건립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조계종은 "노인복지자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불교계와 정부간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관련 항목에는 △전통사찰 보존 △문화재 보수·정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이, '납북교류' 관련 항목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개성 지역 문화재 조사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통불교문화 보급' 항목에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들어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북한산 문제 친환경 노선 채택 지원

불교문화재 종단환수 위한 정책 필요”

명하고 "국무총리실은 객관성과 중립성, 조정능력에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며 불자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는 △문화관광부 종무실 통폐합 반대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국공립 박물관 소장 종단 소유 불교문화재의 불교계 이관 등

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국공립 박물관에 분산 보관돼 있는 불교 문화재는 국보 4점, 보물 12점을 포함해 총 2,121점이다.

"국고 지원" 분야에는 △종단 역점 추진사업 △전통사찰 및 문화재 △납북교류 △전통불교문화 등 4개 항

목에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조계종은 이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종단의 자부담 외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제시한 '종단 역점 추진 사업'의 세부 항목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국공립사찰 실비 노인 요양시설 △한국불교국제간화선센터 건립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조계종은 "노인복지자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불교계와 정부간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관련 항목에는 △전통사찰 보존 △문화재 보수·정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이, '납북교류' 관련 항목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개성 지역 문화재 조사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통불교문화 보급' 항목에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들어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본각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비구니연구소에서 학인스님들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인터뷰 비구니총서 발간한 본각스님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999년, 대한매일신문사에서 <여성종교지도자명감> 편찬을 위해 당시 승가대학 비구니 수행관장이었던 저에게 불교계 인사의 원고정리를 부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각 종교의 지도자를 수록하는 명감에 불교계 인사만이 빠질까 염려돼 맡게 된 일입니다. 명감을 작성하려면 먼저 인선(人選)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었어. 그



계화 시키면 학문이 된다'는 말로 한국비구니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했지요."

▲이번 총서발간으로 지난 8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법회 때 '비구니회장 감사패'를 받았는데 소감은?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인스님들을 대표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이번 총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 중 상당수를 차지하

는 고문서 자료들을 따로 빼 놓았습니다. 삼국유사, 이조실록 등 사료에서 선별한 고문서 자료들을 보완해 3~4년 이내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학인스님들이 전국 각지의 사찰을 직접 방문해서 수백 개의 테이프에 담은 비구니 스님들의 녹취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처음엔 1년이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

를 바탕으로 비구니 큰스님들의 어록, 발자취를 담은 '행장'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행장 작업은 가능하다

면 내년 6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사기아다타세계여성불자대회) 전까지 끝마치려 합니다. 사실 외국학계 등 외부에서 한국비구니에 대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지만 그때마다 1600년 역사, 7천명 비구니 승단을 자랑하는 한국불교에서 마땅히 내놓을 자료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책을 보게 될 여성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불교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재가불자와 비구니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여성 불자 모두가 좋은 동반자로서 연합한 세계 여성불교의 교량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학인 스님 58명 방학 반납 4년동안 작업

비구니 큰스님 어록·행장 내년 6월전 출간

규모, 결국 연구소를 거쳐 간 40명을 비롯해 현재 활동 중인 18명의 학인스님이 4년간의 방학을 고스란히 반납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학인스님들의 고생이 컸어요. 신문자료를 모을 때는 신문특유의 냄새를 견뎌야 했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갔습니다. 정리한 자료라도 순서가 바뀌면 꼼꼼히 쳐다보며 다시 시작했죠. 특히 교양논문(비구니와 여성불교) 4,5권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서 간행된 학술지는 물론이고 교양지에 게재된 기고문까지 찾아내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비구니 관련 분야가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는지 난감할 때가 많았지만, 그 때마다 '비구니분야는 학문이 아니지만 자료를 모으고 체

면 내년 6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사기아다타세계여성불자대회) 전까지 끝마치려 합니다. 사실 외국학계 등 외부에서 한국비구니에 대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지만 그때마다 1600년 역사, 7천명 비구니 승단을 자랑하는 한국불교에서 마땅히 내놓을 자료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책을 보게 될 여성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불교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재가불자와 비구니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여성 불자 모두가 좋은 동반자로서 연합한 세계 여성불교의 교량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현 조계종 중앙종회 각 계파 간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편 움직임은 단순한 계파 간 통합이 아닌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지지하는 세력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향후 종단 정치 및 중앙종회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종회 내 최대 계파이자 친 법장스님 계열인 원웅회와 법장스님을 총무원장에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입회회 및 무소속 종회의원 대표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고 통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계파에 참여하는 인원은 원웅회 23명, 입회회 9명 전원과 무소

속 3~5명 등 모두 35~38명 가량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금강회 소속 종회의원 1~2명이 참여할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법장 스님 종책수행 한계도달” 위기감

“총무원장에 힘실어 주자” 각 계파 통합

국 통합 계파 인원은 종회 내 과반수(41명)를 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격인 보림회의 일부 종회의원도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예상보다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법장스님이 마련한 종회의원 초청 만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종회의원은 모두 52명. 보림회 종회의원이 일부 참석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호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계파들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법장스님이 혼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자정원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밥집 배려

유·리·거·울·은·내·몸·을·비·취·주·고 종·이·거·울·은·내·마·음·을·비·취·준·다

“<중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을 시작하며”

<중이거울자주보기>는 우리나라민 모두가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기를 목표로 정한 새로운 범국민 독서운동입니다. 국민 각자의 책읽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고 모범국가가 되어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성숙 없이는 그 어떠한 인류행복이나 평화도 기대할 수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개개인의 자각을 통한 성숙만이 인류의 희망이고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된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 우리 전 국민의 책읽기로 국민각자의 자각과 성숙을 이루고자 <중이거울자주보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글을 대하는 분들에게서는 저희들의 이 뜻이 안으로는 자신을 위하고 크게는 나라와 인류를 위하는 입임을 생각하시어, 흔쾌히 동참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7일 <중이거울자주보기>운동

- 공동대표 / 조홍식 이시우 황명숙
- 지도위원 / 조홍식(성균관대명예교수) 박재동(에니메이션 감독) 박성근(낙농업) 황보상(의사) 김재영(동방대교수) 이근우(의사) 정운표(서예가)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박범훈(작곡가)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장) 안장현(사신작가) 방상복(신부) 이재운(소설가) 송영식(변호사) 이택주(한택시물원장) 이시우(前 서울대교수) 신희섭(KIST학습기억학연구단장) 김숙자(주부) 김기철(도예가) 강대철(조각가) 이호신(화가) 김성배(미,연방정부공무원) 신승실(주부) 이일훈(건축사) 김세용(도예가) 김영진(변호사) 임현담(히말라야순례자) 안상수(홍익대교수) 박광서(서강대교수) 박성배(미,뉴욕주립대교수) 안숙선(판소리명창)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교수) 유재근(연세회주) 한승조(고려대명예교수) 서해경(전주대교수) 민희식(한양대명예교수) 이인자(경기대교수) 황명숙(한양대명예교수) 손진책(연출가) 박세일(서울대교수) 이종필(전남대교수) -무소속-

- <중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의 회원이 되려면,
 - 먼저 <중이거울자주보기>운동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매월 회비 10,000원을 납니다. (1년, 또는 몇 달 분을 한꺼번에 내셔도 됩니다.)
 - 국민은행 245-01-0039-10(예금주 김민현)
 - 때때로 특별회비를 납니다. 자신이나 집안의 경사 및 기념일을 맞아 회비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책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책을 증정하여 <중이거울자주보기>운동을 꼭 넓게 펼쳐갑니다.
- <중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의 회원이 되면,
 - 회원은 매월 책 한 권 이상 읽습니다.
 - 매월 책값(회비)에 관계없이 좋은 책, 한 권씩을 무료로 보냅니다. (회원은 그 달에 읽을 책을 정해서 받게 됩니다.)
- <도서출판중이거울>에서 발간되는 책마다 회원의 이름을 실습니다.
- 저자의 출판기념 강연회와 사인회에 초대합니다.
- 자이나나 친지, 또는 특정한 곳에 종중의 책을 10권 이상 구입하여 보낼 경우 특전을 받습니다. ※ 팸스 선불할 일이 있으면 가급적 책으로 하고, 이웃이나 친지들에게도 책 선물을 적극 권합니다.
- <도서출판중이거울> 및 유권권이 주취·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초대합니다.
- 책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자주, 기쁜 마음으로 책을 증정합니다.
- <중이거울자주보기>운동의 홍보위원을 지원합니다.
- 집의 벽 한 면은 책으로 장식합니다.

연락처 / <중이거울자주보기>운동 전화 031-676-8700 전수 031-676-8700 E-mail dopiansa@kornet.net